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

### 익산시, 졸업 후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회통합 실현 120억원 투입... 내년 12월까지 연면적 2700㎡ 지상 4층 규모

익산시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700㎡ 규모로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시작한 설계 공모의 심사 결과를 오는 4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발달장애인은 2500여 명이다. 이 중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극심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



정례 브리핑하는 김영희 익산시청 복지교육국장. (사진=익산시청 제공)

그램을 개발, 아들이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해내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에는 교육과 지원·사무관리·긴급돌봄센터 등이 배치된다. 교육영역에는 교실과 특수 교육실 등이 위치하고 지원영역에는 식당, 강당, 안정실, 보건실, 사무관리영역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및 긴급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특히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에서는 1개 소만 운영되고 있다.

시는 센터 안에 긴급돌봄센터를 배치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했고, 부지 측량이나 지반·입목조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을 통해 설계용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와 같은 부지 안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도 병행 추진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진윤)가 14일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신광의 집'을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 치매극복선도 '신광의 집' 현판식

### 익산시, 유관기관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나서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진윤)가 14일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신광의 집'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13개소의 기관·단체·학교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신광의 집(센터장 주원희, 덕기동 소재)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 등 어르신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보살피고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직원 대상 치매인식 개선 교육 및 파트너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등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도모하고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치매인식 개선 및 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치매극복선도단체를 발굴하고 치매환자의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3-859-408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 유치 시동

### 전북자치도, 천년전북 청년식품 회원사 21개 업체와 협약 체결

익산시가 글로벌 첨단 식품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위해 도내 청년 식품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시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천년전북 청년식품(회장 구경한) 회원사 21개 업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단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현을 익산시청,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천년전북 청년식품 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천년전북 청년식품은 2022년 12월 도내 식품기업 경영 2세 및 청년 식품

창업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익산시 나눔공간 기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발매식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투자협약에 참여한 21개사는 도내 14개 시군에 고루 분포하며 축, 김치, 밀 키트, 육가공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으로 152,066㎡(약 46,000평)의 부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경한 회장은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투자협약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혜택에 대해 알게 됐다"며 "우리 회원사들은 익산시와 지

속해서 교류하며 성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천년전북 청년식품 회원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해 세계로 비상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지난해 3월 국가청산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이후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4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

군산시는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속도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억 5천만 원 중축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환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출 한도를 5천만원 상향하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를 완화하여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월 28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2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산모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익산시가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가 지정된 의료기관(한의원·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 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시행했으며, 이듬해 전북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됐다. 사업을 통해 3,391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도비 포함 총 1억 1200만 원을 투입 560명의 산모에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 둔 출산 1년 이내의 산모(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비우치를 모두 소진한 자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방역장비 무상 대여 사업 실시

익산시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장비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상고온 등으로 급증하는 돌발 위생해충이나 방역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개인 주거 공간 등에 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대여 장비는 파리, 모기 등의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소형 방역기 및 압축분무기와 반대 방제를 위한 고온 스팀방역기 3종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교육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기본 7일이며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도내 8개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사업추진도모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사업설명 및 유의사항안내 △카드관리시스템설명 △수혜자정보 입력, 카드등록 등 통합관리시스템설

명 △식생활교육 및 협조사항안내 △효과분석 연구 및 협조요청안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지역 신선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첫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공모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농가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0일부터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발급 받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